

營農 適應人力 養成 方案

— 農業系高等學校 農業教育을 中心으로 —

高 永 友*

— 목 차 —

- | |
|--------------------|
| I. 緒 論 |
| 1. 研究의 必要性 |
| 2. 研究의 範圍 |
| II. 營農 適應人力 養成의 摸索 |
| 1. 專門教育課程 運營의 改善 |
| 2. 農業에 대한 새로운 認識 |
| III. 結 論 |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現在 우리 나라는 食糧의 自給度가 必要 全量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最近 國際間에 農産物 輸入開放壓力이 高潮되고 있어서 이에 適應하고 競爭할 수 있는 精銳 農業技術人力의 養成은 時急하다.

農業은 國家發展의 原動力이라고 한다. 農村이 落後하고 農業生産力이 저하되면 他産業의 發展에도 미치는 影響은 큰 것이며 급기야는 우리 모두의 生存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國家·社會發展의 기틀을 닦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의 生存을 보장하기 위하여 農業은 반드시 유지·發展되어야 한다.

'70年代 이후 우리 나라는 産業의 高度化·多樣化되면서 農業에의 忌避現象은 加速化되고 있다. 해마다 늘고 있는 離農現象 특히 生産年齡階層인 育壯年層의 離農現象은 農村基幹勞動의 老齡化, 營農後繼者의 確保難, 農業生産力의 低下등을 招來케 하고 있다. 더불어서 우리 社會가 안

* 農科大學 農學科

고 있는 人文崇尚의 風潮, 價値觀의 變化 및 顛倒, 都·農間 所得의 격차 등과 관련하여 近來에 더욱 農業教育 希望者의 減少趨勢나 農業教育意慾이 저하된 實態들은 農業教育을 더욱 어렵게 하는 實情이다.

그러나 이같은 趨勢나 어려운 實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農業教育은 發展해야하고 農業教育을 받은 者는 보다 活氣찬 營農 適應人力으로 定着되어야 하기 때문에 農業教育은 어느 教育 못지않게 重要視되는 것이다. 이러한 重要性和 時宜性에 따라 農業教育目的의 하나인 「營農 適應人力養成」이라는 課題에 대하여 深度있게 檢討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改善策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意義있고 必要한 일이라 하겠다.

2. 研究의 範圍

당초 이 研究의 內容은 地域農業과 관련시켜 農業教育의 改善方案을 찾으려 했다. 어느 한 地域의 立地의 條件은 農業의 特性을 形成케 하고 따라서 한 地域社會의 農業이 要請하는 營農 適應人力은 그 地域 農業教育을 통해 양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農業教育은 한 地域社會의 農業發展보다 한 나라의 農業의 成長·發展과 불가분의 關係가 있는 것이며 또한 地域農業만을 考慮하여 農業教育이 이뤄졌을 때 마치 根幹이 없는 枝葉만을 일별케 하는 위험을 남기 쉬운 것이며 더구나 오늘날 農業教育이 안고 있는 問題들은 결코 어느 한 地域에만 局限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農業教育에서 共通의으로 解決되어야 할 課題라는 점에서 研究의 軸점을 넓은데서 찾았고 이에 따른 諸般 問題를 導出하려고 애썼다.

農業教育目標을 效果의으로 達成하기 위해서는 問題要因을 여러가지로 抽出할 수 있다. 이를테면 農業環境, 農業政策, 農業教育制度 등 소위 外緣的 要因에 比重을 두어 識見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筆者는 이러한 範疇에서 解決方案을 摸索하는 것보다 農業教育 現場에서 實現可能한 問題를 導出·論議하여 여기에 맞는 最善의 處方이 무엇인가를 摸索하려고 했다.

그래서 本 研究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農業教育課程 運營」과 「農業에의 올바른 價値認識」이란 內容으로 集約시켰으며 이 集約·提起된 內容을 토대로 農業教育이 改善될 때 未來에 성실하고 쾌기에 찬 營農適應人力은 양성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정한 것이다.

II. 營農 適應人力 養成의 摸索

1. 專門教育課程 運營의 改善

(1) 教育課程 運營의 類型과 農業教育

教育課程이란 「學校에서 一定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學校의 指導下에 學習者에게 提供되는 知的·情緒的·技能的·身體的 諸 經驗의 總體」라고 한다. 이러한 概念을 지니고 있는 教育課程은 學校教育이 시작된 이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個人의 成長目標나 社會의 變遷 또는 人類文化的 進展 등에 따라 그 類型이나 中心課題의 比重이 크게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過去 主知教育에 치중됐던 시대에는 教科中心教育課程으로 學校教育目標를 達成해 왔으며 그 이후 學校教育은 學習者의 實生活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必要에서 經驗中心教育課程이 提起되었다. 그러나 知識習得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教科中心教育課程과 學習者의 興味나 活動 등에만 집착한 經驗中心教育課程의 결합을 補完하기 위하여 대두한 것이 中核教育課程이다.

中核教育課程은 各 教科나 社會의 必要를 中核으로 結合하여 統合的인 學習을 鼓吹하려는 데 의도가 있다. 그러나 實¹⁾가 지적인 바와 같이 이 類型은 廣範圍한 教育目標들을 達成하게 할 수 있으나 實際 運用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적절한 指導指針書나 教授資料가 결핍하기 쉽고 또한 教師들의 教育活動 準備에 따른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1960年代에 이르러서 科學文明은 急速度로 發展하였다. 이렇게 發達된 知識이나 技術을 모든 教育課程 속에 組織化하기는 不可能한 것이므로 教育課程은 學問의 基本的 概念이나 原理를 精選하여 運營되어야 한다는 主張들에 따라 學問探究中心教育課程이 提起되었다. 그러나 이 類型도 探究力과 發見力을 向上시킬 수 있는 長點은 있으나 情意的 領域의 學習에 소홀하기 쉽다는 점에서 비판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教育課程의 類型은 時代的, 社會的 變遷과 함께 그 類型도 달라져 왔다. 이렇게 달라져 온 類型에서 우리 農業教育에 가장 適合한 類型은 무엇인가라는 質問을 받게 한다. 그러나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各 類型마다 各기각 長點과 短點이 있는 것이며 또한 아무리 理想的 類型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適用하는 方法이나 能力에 따라 그 差異는 클 수 밖에 없으며 특히 教育環境, 教育制度, 教育目的 등에 따라서는 어느 한 類型이 언제나 理想的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教育은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教科中心教育課程으로 運營되는 경향이 많다. 普通教育에서 中等教育 그리고 高等教育에 이를 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다고 여겨진다. 教科中心教育課程은 學習內容을 組織化하고 새로운 知識과 事實의 說明, 體系化하는데 매우 論理的이고 效果的이라고 한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 現實과 같이 人文選好意識, 知識爲主의 評價, 入試爲主의 教育 등 불가피한 社會現實과 教育制度 및 環境에서는 教科中心教育課程이야말로 教育活動에 最善策이 되어지고 있다.

많은 教育學者들은 오늘의 學校教育은 「全人으로서의 人間教育을 다해야 하며 새로운 發見이나 創造 등의 能力을 갖출 수 있는 教育으로 指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로 學校教育을 다하기 위해서는 學習者에게 주어지는 知識, 技術, 經驗內容이 多樣하며 廣範圍해야 할 것이다. 오

1) 曹正基, 教育課程 및 評價, 教育出版社, 1989, p. 84~87.

허려 意圖化, 計劃化되지 않은 教育課程일지라도 그것이 學習者의 動機誘發, 自我概念形成 등의 教育的 效果를 높일 수 있는 活動이라면 이들까지도 教育課程으로 受容하는 실천이 必要할 것이다. 그래서 教育課程의 運營은 그 概念이 주는 바처럼 知, 情, 意, 體, 心이 조화롭게 發達할 수 있도록 運營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農業教育의 目標은 「營農人 養成 및 關聯業體의 就業者 養成」에 두고 있다.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學習者는 農業에 관한 知識과 技術을 착실히 習得해야 한다. 또한 勤勞의 尊嚴性을 익히고 勤勉하고 誠實한 德性도 農業教育을 통해 길러져야 한다. 따라서 農業教育 內容은 農業에 대한 어떠한 事實이나 結果를 익히는 것보다 이러한 事實이나 結果를 낳는 過程(Process)을 착실히 익혀져야하며 또한 이러한 過程을 실제 겪도록 하는 데 重點內容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農業은 應用科學으로서 教科實習과 自身の 營農課題活動을 통해서 스스로 確認하고 適用할 수 있는 能力이 함께 길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以上을 綜合하여 볼 때 農業教育은 그 과정이 重要한 만큼 또한 특수한 教育活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에 밝힌 여러 형태의 表面的 教育課程中 어느 하나에만 偏重하여 運營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가능한한 모든 類型에 接近하는 努力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教育目的 達成을 위해서라면 潛在的 教育課程까지 적극적으로 受容하는 教育活動도 要求된다 하겠다.

또한 農業教育은 學習者로 하여금 營農意慾의 고취와 다양한 學習經驗을 쌓을 目的으로 정규적 또는 비정규적 교육활동이 과거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를테면 現場實習, 産學協同教育, 營農成功事例發表, 篤農家 및 先進地 見學, 營農學生會活動, 家庭營農實習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교육과정운영의 한 범주이므로 교육과정에 이들의 比重도 높게 다뤄져서 농업교육 효과에 크게 도움되어야 할 것이다.

(2) 專門教科 運營의 實態와 反省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農業教育은 教科中心教育課程을 根幹으로 하여 運營되는 實態라고 하겠다. 이러한 實態의 原因은 注入式 爲主의 學習方法, 室外教育의 負擔性, 多樣한 學習資料準備의 困難性, 學級當 學生數의 過多性 등의 불가피한 學習現場의 內·外的 要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득이 教科中心教育課程으로 教育課程을 運營해야 할 경우 曹²⁾가 제시한 相關教育課程 運營方式을 채택함이 어떨까 한다.

相關教育課程이란 教科中心教育課程의 修正型으로 教科의 內容은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두개 이상의 教科內容을 서로 關聯시켜 意圖的으로 學習시키는 方法이다. 農業教科 運營에서 한 예를 제시하면 「온상제조법」은 單元의 성질상 원예교과나 작물교과에서 중복될 수 있다. 또는 「농약의 사용법」은 생산자재교과와 작물 또는 원예교과의 「병충해방제」單元에서 취급된다. 이와같이 서

2) 曹正基, 前掲書, p.81.

로 관련되는 내용을 각 교과에서 抽出해서 하나의 教科內容으로 再構成하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教科內容을 면밀히 分析하여 서로 同一하거나 類似한 單元을 하나로 묶는 복잡한 作業을 뒤따르게 하며 또한 再構成한 教育內容을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하는 등의 어려운 問題들도 없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반복교육효과를 주장하는 측면에서 異論이 提起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運營의 導入으로 서로 分離되어 있고 또한 단편적인 學習內容을 密度와 深度가 있는 統一的인 學習으로 運營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특히 서로 重復된 教科內容으로 인해 時間의 소모나 興味上的 低調함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學習指導上的 누락, 相反 등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學習內容의 理解와 기억에 있어서도 聯想效果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原來 農業教育은 理論的이고 學問的인 接近보다는 經營能力과 技術能力의 培養에 力點을 두어진다. 이를 위하여 '90學年度부터 新教育課程이 適用되고 있다. 新教育課程의 特性은 「농업생산 기술」「농업경영」「농업기계」의 교과이수에 높은 比重을 두고 있다. 또한 專門選擇科目에 있어서도 開設科의 專門性 伸張보다는 複合營農人으로서의 資質과 能力이 向上될 수 있도록 편제되었다. 다시 말하면 新教育課程의 특징은 종전의 教育課程에서처럼 教科目이 細分된 것이 아니라 統合되었다고 하겠다. 統合된 教科目이기 때문에 科의 特性이나 專門性이 결여되기 쉽다고 異議를 제기하는 事例도 있다. 그러나 農業技術은 하루가 다르게 發展하고 있으며 특히 차제의 農業은 國際競爭力을 더욱 키워가야 할 現시점에서 과연 農業教育 3년을 이수한 정도로써 專門性的 提高가 可能할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졸업후 科의 特性에 맞는 營農定着者나 就業이 실제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다같이 생각해 볼 일이다.

모든 教育課程은 이를 運營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融通성이 주어지고 있다. 教育課程 運營指針³⁾에서 「教育課程의 內容은 地域社會 및 學校實情과 學生의 水準에 맞게 再構成할 수 있으며 必要에 따라 별도 單元을 設定하여 運營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實驗, 實習, 實技의 比率이 50% 基準 內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學習者의 要求나 地域社會의 要諸에 따라 예컨대 「열대작물재배」「감귤재배」「초지조성」「조직배양」「특수동물사육」 등의 教育내용을 再構成 運用할 수도 있는 것이며, 적절한 教育내용의 구성으로 開設된 科의 特性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여겨진다.

흔히 우리 教師들은 상급관청에서 하달되는 指針이나 教育課程, 教科書 등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이러한 경향이나 경직성 때문에 教育效果를 고양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 특히 農業은 他産業과는 달라서 地域性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地域農業과 관련되는 教育內容이나 指針 등은 이를 修正하고 補完하여 教育하는 자세가 教育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덧붙이면 農業教師가 教育現場에서 가장 重要하게 생각되어야 할 도구는 教科書가 아니라 「學習指導案」이다. 충실한 「지도안」의 작성없이 學生을 가르치는 일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때문에 「學習指

3) 鄭聖鳳, 農業高等學校 教育課程 改善方向, 韓農教誌, Vol. 19, 4, 1987, p. 1~7.

導案)에는 날로 변화·發展하는 農業이 알차게 짜여져 있어야 하고 이를 착실히 活用하는 것도 敎科運營을 바르게 하는 것 중의 重要的 하나라고 생각한다.

(3) 實習敎育의 改善과 Program 運營

가. 農場實習敎育의 改善

農業敎育은 實驗의 體驗이 重要하다. 敎室에서 배운 理論을 實際 農場에서 適用해 보아야 함은 물론 體驗을 통하여 勤勉性, 勤勞愛護心, 科學的인 思考力, 農場經營能力 등을 길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重要的 體驗은 주로 學校農場(動物飼育場 포함)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學校農場의 運營實態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 改善點을 摸索해 보려고 한다.

차은 全國 8個道 農業系高等學校 學生과 農業敎師를 標集對象으로 하여 農場實習 改善을 위한 研究報告에 의하면 學生들의 營農實習場으로 利用되는 實習農場이 農場收入에 比重을 두어 運營되고 있으며 實習內容을 「잡초제거」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實은 農業高等學校 實習農場은 單元圃 試驗圃 展示圃 經營圃, 그 외 營農學生課題圃場 등으로 나뉘어 運營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모든 農高의 實習農場이 이렇게 區分되었다고는 하기 힘들며 또한 區分되었어도 展示圃나 經營圃에 더 많은 比重과 關心을 가져 運營되는 事例가 적지 않다. 이렇게 實習農場 대부분이 收入을 올리기 위한 生産實習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서 學習者는 觀察이나 經驗을 통하여 技術을 習得하는 것보다 勞作爲主의 實習이 이뤄지게 마련이고 이러한 勞作爲主의 實習은 學習意慾이나 興味誘發보다는 오히려 倦態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學習者 스스로 부더가 農業을 忌避하고 賤視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學校의 農場은 學生들은 물론 地域社會 住民까지도 항상 찾아주는 훌륭한 實習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學校農場이 篤農家의 農場보다는 앞서 있지 못하거나 배울 것이 별로 없는 곳으로 인식된다면 이것 또한 農場實習를 기피하는 要因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農場에서 가꾸고 있는 生命體에 農場運營上 愛着이나 所有感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學習者는 이들에 愛情을 쏟으려는 心性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農場實習은 敎師와 學生 間에 억지로 끌고, 끌려가는 관계가 된다면 敎育의 參與 價値와 效果는 찾기 힘들다. 부연하면 50餘名의 學生들을 農場에 들여보내 새롭고 價値로운 經驗을 익히는 것보다 항상 반복되는 肉體的 勞作만을 강요할 수 밖에 없다면 敎師와 學生은 단순한 일의 감독자와 노동자로 전락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래서는 農學敎育의 效果는 기대하기 어렵다.

農業敎師는 知識, 技術, 人格에서 秀越性이 강조된다. 그러나 農業敎師의 技士化 傾向, 業務過多, 實技能力의 未治, 士氣低下 등 現實의 문제의 해결없이 秀越性만을 강조하기는 어렵다. 學校

4) 朴金洙外, 農場實習 改善에 關한 研究, 韓農敎誌 Vol., 19, 1, 1987, p. 115.

農場의 生産收入 程度를 가지고 農業教育 全體를 評價하는 事例가 있어서도 안된다. 學校農場이 觀光地처럼 잘 다듬어졌다고 해서 農場運營이 잘되는 것으로 판단해서도 물론 안된다. 어디까지나 學校農場은 學習者를 위한 學習者에 의한 實習場으로서 재기능이 發揮되게끔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로 解決方案에 接近하고 싶다.

① 學校農場은 經營中心運營에서 벗어나 學習者의 營農課題實習場으로서의 比重을 높여 運營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最近 農高에 非農家의 子女 在學生數가 漸增하는 事態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운영은 한편 의의가 더 있다.

② 農業技士의 擴充으로 가능한한 勞作實習은 피하고 부득이 勞作實習을 해야할 경우 必要性, 責任感, 使命感이 우리나라에겐 實習 事前教育에 소홀치 말아야 할 것이다.

③ 農場收益의 일부분은 學生 各者의 修學旅行이나 見學費用 등의 學費補助金으로 쓰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것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희열을 느끼게 하며 또한 實習過程에서 正성과 책임감이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農場內에 가능한한 敎科單元의 內容을 最大로 集約시켜 學習者로 하여금 尙시 比較 研究하는 자세가 涵養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 農業教育 Program 運營

앞에 言及한 農場實習教育은 敎科課程運營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重要한 教育活動의 한 部分이면서도 「實習이라는 짜여진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고 흥미로운 속에 實習效果를 높일 수 있는 對案은 없는가, 營農 適應人力을 양성한다는 前提에서 보다 더 效果의인 實習教育은 무엇인가」라는 質問에 筆者는 Program 運營方式을 제시하고 싶다.

宋⁵⁾은 學校에서 運營되는 Curriculum과 유사한 用語로써 Program의 重要性을 강조한 바 있다. 프로그램은 커리큘럼과 같이 教育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관련敎과목을 조직화하고, 그 構成要素도 學生, 敎師, 教育內容, 環境 등의 共通要素를 갖추고 있다. 다만 學習對象의 身分이 多樣할 뿐더러 敎師에게는 運營의 多樣性이 있고 授業場所가 學校라고 하는 固定된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區分된다고 한다.

原來 Program이란 用語는 進路教育, 職業教育, 校外教育 등에서 흔히 쓰여지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用語 속에는 室內 敎科中心教育보다 室外 實習中心教育이나 經驗中心教育이라는 意味가 많이 內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農業教育에서의 專門敎科 運營은 커리큘럼이라는 觀點보다 프로그램이라는 觀點으로 接近시켜 運營하는 것이 農業教育目的 達成에 더욱 成功의 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본다.

일찍이 Deyoe⁶⁾은 農業教育에 있어서 營農 Program 運營은 매우 重要하다고 強調한 바 있다.

5) 李海均外, 農業教育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7, p. 115.

6) Deyoe, Farming Program in Vocational Agriculture, Interstate Printers, 1953, p. 12.

왜냐하면 營農 Program 活動을 통해 學習者들에게 가장 성공적인 營農活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함께 일하는 經驗을 얻을 수 있으며, 장차 營農計劃을 樹立하는 데도 크게 도움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앞서 學習者에 가장 適合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樹立하느냐가 重要한 關鍵이 된다. Phipps⁷⁾는 農業教育 Program 活動은 地域社會의 篤農家, 農業專門家, 農業行政官, 教育指導者 등으로 農業教育諮問委員會를 構成하여 學校는 이 諮問委員會와 함께 農業教育 프로그램을 樹立하고 서로 함께 推進해야 한다고 했다.

學校는 地域社會의 橫的인 組織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學校가 이들 橫的 組織과 함께 農業教育 프로그램이 樹立되었을 때 農業教育은 地域社會의 要請에 符合하게 되며, 地域社會는 農業教育을 위해 共同의 責任을 느끼게 된다.

프로그램의 運營은 學習者로 하여금 經驗과 훈련, 應用 및 動機賦與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 한 例⁸⁾로 金海農高의 경우 卒業生 營農會 모임인 「金農會」를 '81년부터 조직하여 母校의 各種行事에 참여해서 在學生과의 座談會를 實施하고, 情報交換, 營農事例發表, 會員農場의 現場 實習場으로서의 活用 등 農業教育을 위한 프로그램이 훌륭히 遂行되고 있다고 한다. 그 外로 美國 農業教育의 한 事例과 같이 「學生別 家庭營農實態 카-드」의 活用도 教師가 學生에 대한 關心과 指導를 더욱 높여줄 수 있는 資料가 되며 이러한 자료의 活用을 통해 營農定着 意慾을 促求하는 것도 프로그램 活動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農業教育에서 프로그램 活動의 根幹은 어디까지나 實踐을 통한 學習(Learning by Doing)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筆者가 農業教育에서의 實習教育을 프로그램 活動으로 接近시키는 의도는 學習者가 學校內에서 엄격한 규율이나 規律속의 教育活動보다 자유롭고 創意的인 活動을 통하여 스스로 營農經驗을 體得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農業에 대한 興味와 意慾을 더욱 鼓吹시키려는 데 根本目的이 있으므로 充分한 檢討와 함께 受容이 期待되는 農業教育活動이라고 하고 싶다.

2. 農業에 대한 새로운 認識

(1) 農業의 價値性

農業은 土地를 利用하여 人間의 生活에 有用한 動·植物을 經濟的으로 획득하는 질서행위라고 할 수 있다. 農業은 그 目的하는 生産物이 다른 産業에서와는 달리 有機生命體이며 이러한 生命體를 얻기까지에는 온갖 정성과 손길이 닿아야 하기 때문에 農業만이 갖는 여러가지 特性이 있다.

7) Phipps, Handbook on Agricultural Education in Public Schools, the Interstate Printers & Pub. Inc., 1966, p. 49~77.

8) 金忠國, 農村開發을 위한 農業高等學校의 橫的 協同事例, 金海農高, 1987.

그 特性을 살펴보면 우선 生命體가 生育하는 場으로서 광활하고 肥沃한 土地가 필요하다. 이 토지 위에 태양에너지나 氣象環境과 같은 自然的 條件이 크게 影響을 미친다. 또한 人間의 必要한 生産物을 얻기까지에는 一定의 期間이 所要되어야만 하고 提供되는 勞動의 質과 類型도 生命體의 成長에 따라 一定치 않다. 따라서 주어진 土地에 勞動과 資本財의 投下量이 增加할수록 生産量도 이에 따라 無限히 增加하지 않는다는 法則도 農業에서만 나타내는 特性이다.

이렇듯 農業은 그 意義나 特性이 독특하기 때문에 높은 價値가 賦與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特性들은 人間의 衣·食·住를 해결한다는 단순한 次元을 넘어서 人間의 心性에 미치는 影響이 오히려 큰 것이다.

張⁹⁾은 「農業哲學」이라는 그의 著書에서 「農業人이야말로 自然的 創造的 過程에서의 參加者」라고 했다. 農業人은 흙을 일구면서 人間에 有益한 價値를 創造한다. 自然的 法則에 順從하면서도 때로는 挑戰하기도 한다. 自然災害에 대한 시련과 克服을 배운다. 흙이나 生命體에 땅이나 愛情을 쏟은 것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眞理를 배운다. 그리고 正直함도 배운다.

이렇게 農業人은 農業을 통해서 人間의 心性을 바르게 形成케 하고 또한 無限한 보람을 創造하고 있기에 매우 價値로운 것이다.

일찍이 프랑스의 곤충학자 Jean Henri Fabre는 「歷史는 사람의 죽음에 直面하는 전쟁터를 예기하지만 삶에 불가결한 農土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경멸한다. 그리고 歷史는 王의 私生子를 가르키지만 밀(Wheat)의 起源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 人間은 모두가 土地를 비롯한 自然環境 속에 맡겨져서 生命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고마움이나 價値를 모르고 살아가기 쉽다.

地球上의 人口는 폭발적으로 增加하고 있고 産業技術의 巨大化, 高度化함에 따라 自然資源의 파괴 내지는 고갈이 예기되는 현실이다. 이런 때일수록 農業의 역할이나 價値를 再認識하여야 한다. 農業을 통해서 食糧을 생산하고, 農業에 의해서 자연의 有用한 資源을 보전하고, 순환의 法則을 지키며 生物圈의 均衡을 유지하게 한다. 産業公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려한 江山도, 固有하고 아름다운 傳統文化도 農業에 의해, 農村에 의해 繼承·發展하고 있다고 보면 農業이야말로 참으로 重要하고 價値로운 것이다.

現在 우리 나라는 해마다 부족되는 食糧과 原資材를 우리 힘으로 생산해야한다는 무거운 課題가 있다. 매년 50萬名 넘게 增加하는 人口를 부양해야 할 責任이 우리 農業人에게 있다. 高度産業社會가 주는 각박한 풍토를 훈훈한 정으로 調和시켜주고, 無慾無汚한 心性이 農業에 의해서 길러져야 할 때다.

이렇게 農業이 갖는 방대한 重要性, 참된 價値, 막중한 責任 등은 우선 農業教育에서 가일층 찾아져야 하겠기에 農業教師들과 學生들은 敎室에서 農場에서 더욱 充實해야 한다. 이들 모두가

9) 張權烈, 農業哲學, 鄉文社, 1988, p. 256~272.

겨레의 희망이며 國家發展의 原動力을 창출한다는 더 크고 높은 소명감으로 教育現場에서 精進할 때 農業教育은 發展할 것이라고 믿는다.

(2) 職業觀의 確立과 進路指導

職業觀이란 職業을 보는 올바른 認識이라고 하겠다. 다시말하면 職業에 대하여 사람들이 尊貴하게 여기거나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社會는 옛부터 官은 높고 民은 낮으며 또한 知識보다 技術은 次位에 있고, 精神勞動에 비해 肉體勞動은 賤視하는 그릇된 풍조가 배태되어 왔다. 특히 사람은 벼슬에 오르거나 經濟적으로 높은 地位에 이르는 것이 가장 尊貴한 사람처럼 생각되어 왔고 또한 한 個人으로서도 매우 소망하는 바램이었다. 이러한 影響이 오늘에 까지 이어져서 人生의 가장 큰 成就는 높은 권세를 얻는 것이며, 가장 편히 사는 길은 손에 때묻히지 않고 땀흘리지도 않으며 사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을 評價할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떠한 能力을 가졌으며 어떻게 열심히 살고 있는냐는 별 관심이 없고 다만 그 사람의 出身背景, 學問, 地位 등에 比重을 두어 評價되어지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職業을 보는 見解에 있어서도 크게 作用되는 것 같다.

職業을 보는 見解에는 日本位, 社會本位, 自己本位에 따라 差異가 있기는 마련인데 그러나 近年에 와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 自己中心의 思考나 個人主義的 入場에서 職業을 보는 경향이 짙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職業의 價値나 社會的 所任보다 地位나 報酬를 重視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하면서 보람을 찾는 것보다 편히 지낼려는 意識이나 行動들이 바로 그것이다.

金¹⁰⁾은 「職業은 生計를 유지하는 수단을 얻는 곳이며, 社會的 역할분담자로서의 機能을 가지며, 職業을 통해서 自身의 素質이나 能力을 더욱 개발 신장할 수 있는 소위 自我實現을 위한 課業」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이와같이 職業이 갖는 意義나 目的은 經濟的, 社會的, 自我實現을 위한 課業이라고 할 때 이들 어느 하나에만 편중됨이 없이 서로가 調和롭게 追求되어야만 職業으로서의 價値와 意義가 있는 것이므로 職業을 보는 認識은 바르게 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人間은 누구나 目標나 期待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크고 작은 간에 한 個人에겐 매우 所重한 것이다. 職業을 통해 財貨를 늘리려는 생각, 名譽를 얻고자 하는 行爲, 德을 쌓으려는 마음, 행복을 追求하는 姿勢 이런 것 모두가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로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참되고 價値로운 것인가는 目標나 期待 그 自體에 있는것이 아니라 이를 이룩하는 過程에 있으며 또한 얼마나 가치로왔느냐의 평가는 훗날 이뤄진다 하겠다. 아무리 당당한 富와 權勢를 누렸어도 부끄러움을 남겼다면 그것은 결코 價値로운 삶이었다고 얘기할 수 없다. 갖은 역경과 苦痛을 감내하면서도 값지고 보람됨을 남겼다면 그것이야말로 價値로운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自身에게 주어진 狀況이나 與件에서 가장 價値있고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 설사 고통

10) 金忠起, 職業教育과 進路教育, 教育科學社, 1987, p. 19~20.

과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을 멋있게 자랑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길터는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깊이있게 생각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만일 「農業」이란 직업이 설정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다음의 문제는 教育活動을 통하여 學習者로 하여금 農業에의 뚜렷한 職業觀을 어떻게 確立시킬 것인가, 또한 農業教育 履修者로 하여금 未來 韓國농업에 適應하며 성공적 삶을 이룩할 수 있는 最善의 方略이 무엇인가라는 또다른 質問을 받게 한다. 이러한 質問에 筆者는 오로지 進路指導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일단 學生이 自意던 他意던 農業高等學校에 入學을 했고 現在 農業教育을 받고 있는 學生이라면 거의 進路는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다 하겠다. 이미 정해진 進路라면 이를 더욱 탄탄히 다지고 활기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農業教育에서 할 일이다. 혹시 아직도 自身의 進路를 決定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學生들이 있다면 이들은 自身에 대한 客觀的인 理解를 바탕으로 하루 속히 進路가 設定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卽 個人的 適性이나 素質, 家庭環境, 可能性, 成長發達過程, 身體的 條件 등을 충분히 理解토록하여 가장 適合한 進路가 선택될 수 있도록 일깨워주어야 한다.

農業高等學校에 在學하고 있는 學生中에는 營農할 수 있는 바탕이 전혀 없고, 農業에의 興味와 意慾이 거의 상실한 學生들이 많은 줄 안다. 그러나 배우고 닦은 지식과 기술을 教育目的 그대로 活用하게끔 생각이나 態度를 變化시키는 것이 教育이라 할진대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質問을 自身에게 하고 이러한 質問에 답이 될 수 있는 共通分母를 찾아 가장 適合한 進路가 設定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營農定着者들을 對象으로 營農決心時期과 관련된 研究報告¹¹⁾에 의하면 農高出身者 대부분의 營農定着者들은 營農을 決心한 時期가 農業教育을 받았던 時期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農業教育에서의 進路指導는 더욱 重要한 것이며 進路의 方向 역시 職業指導에 關心을 두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職業指導는 教育目的에 符合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妥當하고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공연한 기우이길 바라지만 혹시 色盲인 身體障礙者가 染色工이나 畫家가 되려는 어리석음을 보고만 있는 격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어디까지나 個人的 素質과 能力 그리고 適性에 알맞는 職業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生産的인 社會成員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農業教育을 통해 반드시 해야 할 進路指導이며 農業에의 職業觀을 確立시키는 길이라 하겠다.

(3) 協助 및 支援의 強化

現在 우리 나라 農業은 先進農業國에 비하여 아직도 크게 뒤지고 있다. 그위에 外國農產物의 輸入增加 實情, 農業從事者의 相對的 貧困, 農民에 대한 社會的 대우 등 農業教育 以外的 여러

11) 羅承日外, 農業高等學校 學生들의 進路意識 成熟과 關聯變因, 韓農敎誌, Vol., 19, 2, 1987, p. 1~11.

側面에서 關心이 모아져야 할 때다.

鄭¹²⁾ 曹¹³⁾는 最近 젊은이들이 農村을 忌避하고 營農定着이 힘들고 있는 原因으로 「營農바탕이 未洽하다, 農業은 肉體的 苦痛이 따른다. 所得이 낮다. 農業技術이 不足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筆者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며 나름대로 그 原因에 대한 檢討를 하고 對策을 接近해 본다.

우리 나라 農家人口는 매년 減少하고 있다. '75年 1천3백만의 農家人口(총 인구의 37.5%)였던 것이 '88년에는 7백2십만(총인구의 17.3%)으로 감소하였다. '90年 현재는 총인구의 16%에도 못미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 農家人口가 每年 감소하고 있다는 그 事實 自體를 問題視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째서 農家人口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農村의 中心人力인 靑壯年層 人口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에 關心을 갖고 싶은 것이다.

우리 나라 總耕地面積은 약 215萬町步로써 農家戶當 耕地面積은 1.1 ha에 이른다. 과거에 비해 그 면적이 다소 증가되었기는 하나 아직도 협소한 편이다. 原來 土地는 不增性인데다 간척·개간 등에 의하여 총경지면적을 擴大시킬 수 있다고 하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零細農에 대한 脫農政策으로 農家戶當 耕作面積을 擴大시킬 수 있는 길도 있으나 脫農者를 위한 대책이 先行되지 않고서는 또다른 社會問題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 農家經濟의 實情에 비추어 農地買入에 의한 耕地面積의 擴大도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또한 農民의 所有하고 있는 農地를 그 子女에게 公평 分配·相續시켜주는 현재의 慣行이나 制度 등도 戶當 耕地面積을 더욱 협소하게 한다고도 보아진다. 最近 일부 企業人이 農業以外的 目的으로 農地를 買入하는 事例들도 있어서 이것 역시 農家의 耕地面積을 협소케 하는 原因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우리 나라 農家戶當 耕地面積은 협소하다. 그러므로 營農을 希望하면서도 營農바탕이 결여되기 쉽고, 營農을 한다해도 零細經營을 脫皮하기란 힘들게 한다. 그런데다 우리 나라 農業經營形態나 構造上的 問題가 山積해 있어서 이를테면 米麥偏重의 主穀經營, 生産 및 流通構造上的 問題, 農產物 價格의 不安定, 農民組織活性化의 未洽, 農外所得率低調, 資本形成不振, 農業機械化의 先決問題 등 農業에의 제반 여건이나 環境이 경영규모를 적게할 수 밖에 없다. 經營規模가 적기 때문에 이에 따른 所得도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88年 1人當 國民所得은 4,040 불에 이르렀다. 韓貨로 259萬원이다. 같은 해 農家所得은 8백3萬원으로 報告되고 있다. 農家戶當 平均人口를 4.15인으로 보면 1人當 所得은 2백만 원 수준이다. 즉 農家人口 1人이 얻어지는 所得은 國民 1人當 平均所得에 못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實態를 보아서도 農民들은 所得이 낮기 때문에 所得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서 離農한다는 理由가 성립되게 한다.

最近 農業의 機械化가 促進되면서 農業生産能率은 매우 向上되고 있으며 또한 農民의 肉體的

12) 鄭聖鳳外, 農業高等學校 出身 自營者의 營農定着 關聯 變因, 韓農敎誌, Vol., 19, 2, 1987, p.63 ~75.

13) 曹永哲外, 農漁民後繼者의 營農定着成功 要因에 關한 研究, 韓農敎誌, Vol., 19, 2, 1987, p.13 ~23.

勞働에서 오는 苦痛도 많이 輕減되고 있다. 그러나 農業機械化의 전제조건인 耕地面積 擴大, 耕地整理, 交換分合, 遊休勞働의 對策 등 이러한 것이 先決되지 않고서는 農業의 機械化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다.

그 외 國民意識上的 問題도 크다고 보아지는데 소위 出世, 成功, 幸福 등에 대한 社會的 통념들도 바르게 정착되어져야 하고, 아무나 農事는 지을 수 있다는 생각, 農業이나 勞働을 輕視하는 社會的 風조 등이 하루 빨리 바뀌어져 모든 國民의 意識 속에 農民이야말로 가장 고맙고 위대한 存在로 인식되는 風토가 조성되어져야 營農定着者는 늘어날 것이다.

國家에서는 營農後繼者 養成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81년부터 農村에 定着하려는 營農後繼者들에게 營農資金을 支援해오고 있다. 營農後繼者 1人當 1천만원 수준으로 '89年末 현재 그 受惠者는 45,444명에 이른다. 農林水産部報告¹⁴⁾에 의하면 매년 2천명씩 育成할 계획으로 6만 7천여 自然部落에 평균 1명이 되도록 年次的으로 支援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農業高等學校 在學生에게 營農課題資金도 支援되고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農業教育을 위한, 營農定着者를 위한 社會的인 또는 國家的인 協助나 支援이 보다 더 이뤄지지 않고서는 실로 農業教育은 힘들고 營農定着者의 數도 늘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農業教育을 받은 者로서 農業에 確固한 뜻을 갖고 營農定着者로서의 資質이 認定되면 여러 次元에서 充分히 도와주자는 것이다. 그 한 方法으로 營農定着 希望者의 營農計劃을 면밀히 檢討한 후 要求에 相應하는 最少限의 資金支援은 물론이려니와 技術支援, 追遂教育機會의 擴大 및 各種 受惠機會의 擴大賦與가 있어져서 矜持와 霸氣에 찬 精銳 農業技術人力이 農村에 誘致되도록 協助하고 또한 支援되어야 할 것이다.

農業은 매력있는 産業으로 育成되어야 한다. 農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精神的으로 肉體的으로 健康하고, 生活이 安定되며, 社會나 國家의 보배처럼 대우받는 높은 위치에 이르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農業을 위해, 農業教育에 대해 더 많은 關心과 協助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우리 나라는 農業災害保險制度의 導入을 위해 研究 中인 것으로 안다. 農産物의 價格安定을 위한 檢討도 이미 進行되고 있다. 農村住民의 所得向上과 福祉增進에도 힘기울이고 있다. 大部分의 産業體는 高學歷 人力보다 中等教育을 마친 技術人力이 점차 要求되고 있어서 農高卒業者의 就業率도 增加하는 추세다. 또한 모든 生産物은 多數의 消費者를 향해서 흘러들어가는 것이므로 農産物을 생산하는 少數의 사람들은 값지고 貴한 存在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農業을 肯定的 次元에서 바라보면 農業人의 未來는 期待와 希望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農業教育을 받는 者와 農業教育을 擔當한 者들이 비록 오늘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의기소침하지말고 目標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精進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農業教育에서 익

14) 農林水産部, 農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90, p. 101.

힌 知識과 技術은 살아 숨쉬게 되고, 生氣넘치는 人力이 農村에 投入될 때 農村은 理想郷 그대로 豐饒와 平和가 감돌 것이다.

Ⅲ. 結 論

農業教育目標의 達成을 위해서는 모든 教育力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고 이 모아진 教育力은 營農 適應人力 養成이라는 甚難 課題의 解決에 더욱 接近되어야 한다. 그러나 接近하는 內容이나 方法은 農業教育現場이 안고 있는 現實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高度化되어 가는 産業社會에서 農業이 차지하는 位相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本研究는 깊은 理論의 背景이나 調查된 成績을 바탕으로 課題에 接近시킨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理論이나 當爲性으로 實現 가능한 範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우선 農業教育課程 運營의 改善에 力點을 두어 方案을 摸索했다. 現在 大部分의 農業教育에서 受容되고 있는 教科中心教育課程을 相關教育課程 運營으로의 轉換을 試圖했고 또한 農業教育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動機賦與, 自我概念形成 등을 伸張할 目的으로 모든 教育課程類型的 綜合的 適用을 促求했다. 뿐만 아니라 農場實習教育을 더욱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經營爲主의 農場運營 傾向에서 學生 營農課題中心의 農場運營方向으로 轉換해야 함을 強調했다.

특히 地域社會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農業教育은 地域社會 橫的인 組織과 연계하여 地域農業과 괴리되지 않고 副應하는 教育으로서 實行을 통한 實行에 의한 學習이 高揚될 수 있도록 農業教育 Program 運營의 試圖를 摸索해 보았다.

따라서 農業教育의 窮極的인 目的은 農業發展에 있는 것이고 農業의 發展을 위해서는 農業에 대한 重要性和 價値認識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職業觀의 確立과 바람직한 進路指導로써 營農 適應人力은 養成되어야 한다. 또한 教育力 만을 가지고 營農定着意慾이나 營農決心이 未洽할 경우 營農後繼者를 위한 社會·國家的인 協助와 支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教育은 學習者로 하여금 行動의 變化를 期待한다. 農業教育 現實이 비록 어렵고 힘들거지라도 渾身의 努力으로 精勵할 때 農業教育은 教育目的 그대로 信念과 期待에 찬 營農 適應人力은 養成 될 것으로 믿는다.

Summary

Plan to Educate Competent Men Suitable for Farming

—Centered on Agriculture Education in Agricultural High School—

Ko Young-woo

In order to educate men suitable for farming as a goal of agriculture education, I tried to search for the following solutions :

1. I laid emphasis on improving the managerial methods of agriculture curricula. I planned to convert the curricula based on textbooks into ones based on a correlative concept, including potential curricula. Especially, for farm practice I planned not only to convert a practice farm run for student farming, but also to put emphasis on a agriculture education program for "Learning by Doing."

2. I demanded that we should recognize anew the importance and value of agriculture through agriculture education. Accordingly, an outlook on the occupation based on agriculture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men suitable for farming should be educated by course teaching methods consistent with agriculture education purpose. Besides society should heartily cooperate and support settlers in farms.